



유를 아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겠더라. '사람 살려야 되는데 살릴 교회가 없구나.' 그래서 전도 준비, 현장 준비, 미래 준비한 것이다.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무엇을 했길래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했는가?

▣ 서론_예언 성취

1. **이사야** - "무너지지만, 남은 자, 그루터기로 일어날 것이다. 복음 회복과 임마누엘로 일어날 것이다.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 언약 잡고 기도 하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를 것이다. 이 빛을 발하기만 하면 열방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2. **겔 37:1-11** 내가 줄 수 없으니까 "말씀을 대언해라. 생기를 대언해라." 마른 뼈가 군대로 바뀌었다.
3. **렘 33:1-9**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회복을 써 놓았다(4-9절).

학개 2:1-9

- 01 일곱째 달 곧 그 달 이십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 르시되
- 02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 03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나
- 04 그러나 여호와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 05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 06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를 진동시킬 것이요

- 07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 0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 09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요약

7가지를 발견하고부터 일이 쉬워졌다. 사람들이 응답 못 받는 이유는 모이면 육신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틀린 얘기, 남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한국 교회 70%, 일본 교회 90%가 미자립이다. 유럽과 미국은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많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많다. 그러나 목회자가 직업이다. 어려우니까 돈 걱정하게 된다. 이

▣ 본론_시간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사 60:21-22)

1.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여기에 시간표를 맞춰야 된다.
 - 1) 창 3:15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 2) 창 6:14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
 - 3) 출 3:18 피 언약으로 해방되는 것이다.
 - 4) 사 7:14 임마누엘 되는 길 -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 5) 마 16:16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 ▷ 진짜 복음인 교회가 나오면 하나님은 열방을 진동시키시는 것이다. 사탄이 무릎 꿇어야 된다.
2. **교회 회복** - 성전 건축 이전에 교회 건축부터 해야 된다.
 - 1) 성막에서 옛날에는 모든 것을 다 했다.

- 2) 성전 지었는데 더 문제 왔다.
- 3) 교회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다(고전 3:16).

3. 절대 계획 - 바울이 회복한 세 가지

- 1) **세 틀** - 이스라엘이 선교(이방인의 틀) 나간 적이 없다. 이것 때문에 노예, 포로, 속국 된 것이다. 아이들의 틀, 기도의 틀이 없다. 다른 것을 하고 있다. 근본적인 힘을 얻고 근본적인 치유가 돼야 된다. 렘넌트를 영적 서밋 먼저 만들어서 내보내야 된다.
- 2) **금토일 시대** - 모든 문제 속에서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복음 아는 자, 문제갈등 위기 왔을 때 답이 보이는 기도 아는 자, 기도 모르면 기도와 삶 따로다.
- 3) **묵상 시대** - 237-5000과 맞아야 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창 3 장 명상 시대), 사탄에게 잡히는 네피림(창 6장), 힘 있어 보이지만 바벨탑 (창 11장). 이것을 고쳐주는 묵상 시대

▷ 헤롯 성전이 없어진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 ▣ **결론**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 ▣ **하루 스케줄** - 기도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조용한 아침 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보이는 낮, 300%가 나오는 밤
 - ▣ **한 주 스케줄** - 하나님께서 하시는 흐름이 보인다.
 - ▣ **주일** - 이 언약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다.
 - ▣ **금토일** - 주일 예배의 핵심은 금토일에 들어 있다. 금토일에 와서 말할 수 있는 간증 거리가 생긴다.
 - ▣ **길** - 모든 것을 살리고 가는 길이 보인다. 망대, 여정, 이정표다.

녹취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되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최선을 다해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7가지를 발견하고부터 일이 쉬워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응답을 못 받을까? 또 응답이 뭘까? 그 응답 못 받는 이유를 쉽게 알기 위해서 '아, 저러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교인들은 모이면 중요한 얘기는 안 해요. 육신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것도 남의 얘기. 그것도 틀린 것. 그러니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세계 교회가 큰일 났구나. 문을 닫고 있구나. 자세히 보니까 한국 교회도 한 70% 정도는 미자립이에요. 일본에는 교회도 얼마 없는 데다가 거의 90% 미자립이에요. 그 이유를 알았더니깐요. 유럽, 미국에는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아, 이러니까 당연히 문을 닫겠구나.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이유를 알았더니깐요. 미국 신학교, 유명한 학교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은 거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이 직업이야 그냥.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돈 걱정 많이 하게 되고 말ियो.

그 이유를 알았더니깐요. 얼마나 쉬워요. 이유를 아니까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겠구나. 바깥에 사람 살려야 되는데 살릴 교회가 없구나. 그래서 전도 준비한 거요. 그리고 현장 준비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그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본격적인 시작은 영도 들어가서 했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로 폭발적인 역사 일으켰어요. 지금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비행기 샅이 세 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 선교 대회는 외국에서 못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역대 최대로 많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똑같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목사 한 분은 흥분해서 가는 데마다 간증하고, 이렇게 역사 일어났어요.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하는 이유」(학 2:1-9)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리라는 이유가 뭘니까? 그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조금 이제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힘도 좀 얻고 만나보기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 지교회들 저녁에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우리 해운대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렇게 왔습니다.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영도에서는 경찰이 와서 말릴 정도로 어느 교회가 싸움 붙었어요. 거기에서 싸움하지 않고 기도만 해야 되겠다 하고 나온 분들이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교회입니다. 창원에서 어떤 교회가 운영이 안 돼 가지고 교회당을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산 겁니다. 사서 그 목사님 살 수 있는 집도 만들어 주고, 우리가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는 교회이지요.

해운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작습니다마는 제 동기가 여기사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좀 늦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제 대학 동기예요. 이 친구 여기 있는지 나는 몰랐지요. 이 교회가 부도가 나서 넘어가는데 불신자에게 넘어갈 입장인데 우리가 이렇게 낙찰을 받은 거요. 그런데 찾아왔는데 보니까 내 대학 동기요. "형님!" 살려달라는 거라. "어떻게 살리면 좋겠냐?"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낙찰받아 계속 계속 내려가 버리면 완전히 내려갈 때 하려고 기다렸는데 그걸 지금 임마누엘교회가 그걸 했다 이거요. "아 그랬냐? 자꾸 돈 낮추는 그것도 불법인데 그러면 다시 가져가라."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남의 교회를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 손에 넘어가면 그거 하나 낙찰받은 거다." 내가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랬어요. 못 가져가는 거요. 그래서 뭐 그분이 교회 할 수 있는 건물값, 또 그분이 살 수 있는 상황 맞춰서 우리가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명자들이 모여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했길래 하늘과 땅과 바다, 열방이 진동을 했냐 말ियो.

▣ 서론_ 예언 성취

일단 예언된 게 성취된 겁니다.

1. 이사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예언했어요. 무너지지마는 남은 자, 그 루터기로 일어날 거다. 복음 회복과 임마누엘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너희들이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를 것이다. 이 빛을 발하기만 하면 열방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예언되었어요. 그거 읽은 사람들이 바벨론 가서 살아남은 거요.

2. 겔 37:1-11

에스겔에게 예언했어요. "완전 마른 뼈다귀들 죽었는데 살겠느냐?" 이랬어요. 살겠다고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말했어요. "말씀을 대언해라. 생기를 대언해라." 저는 "대언해라" 이 말에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대언할 뿐이다. 그런데 마른 뼈다귀가 군대로 바뀌었다니까.

3. 렘 33:1-9

미리 예언했어요. 시위대 뜰에 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나?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기도하라 하지, 왜 부르짖으라 합니까? 딴 거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회복되는 걸 짝 써놨어요. 약속된 겁니다.

▣ 본론_시간표

이 시간표가 중요한 거요. 그렇지요? 시간표도 미리 말씀했어요. 이사야 60장에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말 앞에 “그 때가 되면 작은 자는 천을 이루고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나 여호와와가 이루리라.” 그러면 어떤 시간표냐는 겁니다. 해운대에 교회 많습디다. 해운대 살려야 되는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맞추는 겁니다.

1. 성육신 그리스도

이 시간표가 언제인지 압니까? 돌아가서, 얼마 안 있으면, 가장 최고로 약속된, 성육신하시는 그리스도 임하게 되는 시간표입니다.

1) 창 3:15

어머어마하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성취되는 시간표.

2) 창 6:14

아무 조건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3) 출 3:18

절대 길이 없습니다. 피 언약으로 해방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취되는 진짜 시간표에 맞춰가는 겁니다. 약 70년간 바벨론에 가두었는데요. 그 시간이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중요한 시간표가 온 거요. 그러면서 많은 가운데 이미 약속을 한 부분들이란 말이요.

4) 사 7:14

이사야 통해서 약속했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임마누엘이라야 되니까. 임마누엘 되는 길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지금 바벨론 돌아오는 길이 이 타임을 맞춰서 가는 거요. 어머어마한 겁니다.

5) 마 16:16

얼마 안 가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제대로 해 주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은 열방을 진동시키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면 진동시켜 버려.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저를 오랫동안 저를 따라다닌 김용기 목사는 알 겁니다. 실수가 같은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복음 외에는 다른 동기 없습니다. 알 겁니다. 우리 많은 비서들이 알 겁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안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걸 사탄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때문에 이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사탄은 완전히 결박돼 버리는 것이다. 사탄이 쫓겨나서는 안 돼요. 무릎 꿇어 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나간다니까요. 그러나 또 와. 어떤 교회는 매일 싸움 붙입니다. 그거 아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세계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저는 이유 없어요. 아무리 잘못된 사람도 용서합니다. 왜? 그래야 고치니까. 어느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 사람이 깨닫고 고치고 힘 얻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리로 가는 겁니다.

2. 교회 회복

두 번째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열방이 진동하는 이유가 뭐니까? 성전 아닙니다. 교회 회복입니다. 성전 건축 이전에 교회 건축부터 해야 돼요.

1) 성막

옛날에는 성막 가운데서 모든 걸 다 한 거요.

2) 성전

오히려 성전 지어지고 나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더 문제 왔어.

3)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성막도 성전도 필요하지마는 교회당도 필요하지마는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교회고 이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물이 교회당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에요. 그렇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거 지금 회복하러 가는 겁니다. 어머어마하지요.

3. 절대 계획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디다마는 못 깨달은 거요.

1) 세 들

세 가지 들. 못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번도 선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못 깨달은 거요. 이방인의 뜰에 간 적이 없어. 하도 안 되니까 요나를 억지로 내보내잖아요. 이것도 가다가 튀었어. 다른 데로. 그래서 고래 배속에 들어갔다가 토해 나와 가지고 억지로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내보냈잖아요. 이렇게 쉬운 깨달음을 못 하는 거요.

아이들의 뜰 없어요. 있는데,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성전은 있어요, 그 뜰이. 왜냐? 예언해서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것 하고 있다니까. 거기서 장사하고 돈 되는 것 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렘넌트들은 기도에 대한 깊이를 모릅니다. 그렇지요? 장로님들도 잘 모르는데 렘넌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장로님들은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지금. 좋게 말하면 확신 가지고 버티는 거야. 조금 나쁘게 말하면 고집으로 버티는 거야. 그런데 실제 맞은 못 봤단 말이지.

이거 해야 됩니다.

2)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모든 문제 속에서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복음 아는 자입니다. 모든 문제, 갈등, 어려움, 위기 왔을 때 답이 보이는 게 기도입니다. 아납니까?

렘넌트 7명 대표적인 인물인 요셉, 답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괜찮은 거야.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와도 희망이 있으면 고통 이겁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나한테 어려움 와도 내가 희망이 있다? 이기는 거요. 그 참으면 병 돼.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옥을 먹을 만큼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어. 그렇지요? 꿈에 나올 만큼. 꿈에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꿈에 나올 만큼. 어느 날 갑자기 말이에요, 인신매매로 잡혀가는데 요셉은 알은 거예요. 선교지로 간다는 사실을. 그 고백을 나중에 했잖아요.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낸 겁니다. 금토일 시대.

렘넌트들이 사실상 기도할 줄 모르면 기도 예배 따로, 자기 생활 따로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살지, 실제로는 길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직업을 다 바꿔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재택근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WFH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그거는 재택근무라는 뜻이에요. 뭐 많은 건물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제 사람도 별로 필요 없게 됐습니다. 무시무시한 시대가 온 겁니다.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오겠지요? 그래서 237-5천 종족과 맞지 않는 것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다민족들이 병원 치료 많이 하러 옵니다. 당연한 거지요. 우리나라는 그거하고 맞아. 영국 같은 데는, 미국, 유럽 이런 데는 병원 가서 치료받으려면 몇 달 걸려요. 기다리다가 죽어요. 진짜라니까요. 안 맞는 거지. 237하고 안 맞는 거지, 그 사람들 그냥. 일본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237하고 안 맞아요, 잘못하면요.

3) 목상 시대

그걸 보고 목상 시대라고 합니다. '명상해라. 네가 최고야.' 그게 창 3장 명상 시대입니다. '도를 닦아라.' 그게 다 명상운동입니다. 그게 창 3장입니다.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그게 창 3장입니다. 사탄이 한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사탄에게 잡혀 버렸어. 네피림. 그게 창 6장이요. 그러니까 막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 무당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지요? 근데 이게 나중에 봤더니 바벨탑이야. 이거를 고쳐주는 언약이, 언약만 잡어도 돼요. 그 언약이 목상 시대예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라. 그러려면 시설이 또 굉장히 영향 주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빨리 급합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유튜브 개인 방송 시대 온다 했는데 우리가 준비를 빨리 안 했지. 그래서 불신자들이 더 많은 걸 해요. 앞으로 이 걸(세 뜰, 금토일 시대, 목상 시대) 못 알아듣는 교회는 필요 없게 됩니다. 이 뜰에는 치유가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힘을 얻고 근본적인 치유가 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치료는 의사가 하면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는 거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 영적인 것, 진짜 힘을 얻는 거는 그거는 세상에서 해 줄 수가 없단 말이요. 참된 치유. 렘넌트는 영적 서밋을 먼저 만들어서 내보내야 됩니다. 아이들의 뜰. 딱 간직하시면요, 언약만 잡았는데도 돼요. 진짜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잡고 검토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준비해 놓고 지은 성전을 보고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렸단 말이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재건을 했지요. 그 리더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정치꾼인 헤롯 왕이 로마에 잘 보여서 억지로 왕이 됐단 말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인본주의를 쓴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좋아하는 걸 내가 하면 되겠지. 그게 뭐냐? 성전 건축이다. 그러면 성전 건축을 지금 교회 있는데 저거 뜬고 새로 짓는 거요. 어마어마하게.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게 세 번째 성전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전이 다 없어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세 뜰, 금토일 시대, 목상 시대) 없단 이거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해운대에서 하고 있지마는 전국 세계 듣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예언된 그리스도만 믿었는데도 역사 일어났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신 겁니다. 거기에 타 임 맞춘 거요. 사도들 통해서 참된 교회운동을 벌인 겁니다. 특히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이(세 뜰, 금토일 시대, 목상 시대) 세 개를 다 한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 안 와도 되지만 응답은 절로 올 겁니다.

▣ 결론

오늘 여러 번 이런 말 나왔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6번 나왔어요. 그 말 하실 때 이런 말 나왔습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요.

【하루 스케줄】

여러분의 하루 스케줄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침에는 아주 회복하는 조용한 시간으로 기도해서 모든 걸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낮에 깜짝 놀랄 만한 응답이 보여요. 아침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진짜로 얻고 있는데 낮쯤 돼서 사람 만나서 일할 때 보면은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딱 보여요. 그러면 밥 먹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뭐가 300%가 나와. 그게 매일 누리는 아침, 낮, 밤 기도입니다. 찾아내야 돼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주 스케줄】

그러면 한 주 스케줄이 나오지요. 이 기도 속에서 한 주 한 주 스케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흐름이 짝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외국에 갔다 왔던 우리 팀들이 하는 말이 다른 것 이제 필요 없어. 가면 말씀 성취 다 되어 있대. 그렇지.

【주일】

이 언약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금토일】

이 주일 예배의 핵심은 금토일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금토일에 와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간증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하는 중에 굉장한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그게 또 하루 스케줄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매일 확인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 교회도 못 붙어있었습니다. 못 붙어있어요. 힘듭니다. 내가 이 응답이 보인다? 그냥 평생에 교회를 섬기는데 그냥 며칠 섬기는 것 같아. 응답이 계속 쏟아지면 제가 핏박 속에서 40년 했는데 그냥 몇 년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응답이 너무 쏟아지니까 그거 확인하는데 바빠. 새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과 세계를 살려야 되겠구나.

【길】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고 가는 길이 보여요.

저게 땅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여러분이 힘을 얻고 한 주간 동안에 또 힘을 얻고. 그래서 임마누엘교회 특징은요, 주일 아침이나 낮이나 상관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이 꼭 차 있습니다. 그 말은 중직자분들과 많은 사람들이 종일 기도하고 말씀을 잡고 있던 뜻이에요. 앞으로 굉장한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안 와도 되지만 올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축복이 오늘 해운대에서 전국 세계로 퍼져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많은 죽어가는 자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이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사람들이 치유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렘넌트들이 눈을 뜨게 해 주옵시며, 많은 다민족이 변화 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와 장로님들에게 특별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